불교호스피스협회 4주년 기념식

관음사 요양원 대강당서

항상 낯선 일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경험과 사건이 바로 죽음 그리고 이별에 대한 이야기들이다. 이 낯설고 무거우면서도 찜찜한 주제를 다루는 이들이 있다. 바로 호스피스들이다.

불교의 자비정신을 실천하고 호스피스 실천가를 양성하는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창립4주년을 맞아 역할극을 통해 호스피스 활동을 직접 시연하는 자리를 개최했다.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회장 지현)는 창립 4주년을 맞아 10월 18일 부산 당리 관음사 환희노인요양원 대강당에서 '2013 총회 및 창립 4주년기념 호스피스 시연 세미나' 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협회장 당리 관음사 주지 지현 스님을 비롯, 관자재병원 이사장 능행 스님, 조계종 포교원 신도국장 덕산 스님, HIV · AIDS를 위한 한국범종교연합(이하 KINHA) 미리암 회장 등 호스피스 활동가들과 시민불자 300여명이 함께 했다.

'드라마로 호스피스를 말하다' 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제주, 대구, 부산, 울산 4개지부에서 준비한 호스피스 역할극 시연으로 진행됐다. 역할극은 실제 있을 법한, 아니 실제 있었던 일들을 소재로 드라마처럼 진행됐다.

'평화로운 죽음', '행복한 이별' 이라 말하면 무언가 모순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것을 모순처럼 받아들이는 우리의 태도가 잘못 일지 모른다. 이날 총 4편의 역할극으로



(사)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는 10월 18일 관음사 환희노인요양원 대강당에서 '2013 총회 및 창립 4주년기념 호스피스 시연 세미나' 를 개최했다. 사진 왼쪽부터 능행 스님, 봉사상을 수상한 최유석 · 장점숙 불자, 지현 스님.

호스피스 역할극 시연 눈길

임원 임명과 봉사상 수여식도

진행된 시연은 바로 죽음에 대한 따뜻한 접근, 이별에 대한 행복과 감동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장 지현 스님은 역할극 시연에 앞서 환영사에서 "부처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웃이 죽음의 문턱에서 고통을 하소연하고 두려움에 휩싸여 불안해 할 때, 이들의 눈이 되고 손이 되어서 그들을 보살피겠다는 개개인의 원력이 모이고 모여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가 창립됐고 이제 4돌을 맞이했다"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실천해 온 봉사자들의 아름답고 거룩한 보살행에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길 기원한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KINHA 미리암 회장은 "죽음은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진짜 원수는 절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후 "다행인 것은 절망과 포기를 극복할 수 있다.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고 함께라면 가능하다.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돌보는 것은 어떤 진통제보다 고통을 덜어주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역할극 시연에 앞서 임원 임명과 봉사상 수여식이 있었다. 감사에 상진 스님 · 노태식 씨, 서울지부 지도법사에 유방 스님이 각각 임명장을 수여 받았고, 봉사상에 충북지부 최유석씨, 부산지부에 장점숙씨가 수상했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제6회 대한민국 청소년 합창제 개최

영예의 대상에 부산진여고 수상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는 10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전국 청소년 불자들의 합창대회가 부산에서 개최됐다. 부산파라미타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는 10월 1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을 발굴하고 음악을 통한 협동심 단결심을 배양하는 장이 된 이번 합창제에는 총10개팀(중등 6개팀, 고등 4개팀)이 본선에서 경쟁을 펼쳤다.

백명숙 회장은 "치열한 경쟁사회를 준비하며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는 청소년들이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기원한다"며 격려의 말을 전했다.

영예의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상금200만원)에는 부산진여자고등학교(교장 박성률), 금상(부산시장상, 상금150만원)에는 경남 마산제일여자고등학교와 김해여자중학교, 은상(부산시의회 의장상, 상금100만원)은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와 경기 매향중학교, 동상(부산시 교육감상, 상금100만원)은 경남 창원명곡고등학교와 경남 신주중학교, 장려상(동국대경주캠퍼스 총장상)은 부산 해동중학교, 해연중학교, 경남 범어 중학교에게 각각 돌아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경주불국사 제 41회 신라불교 영산대재

12일 경내 범영루 앞 광장서


경주 불국사의 41회 신라불교 영산대재 장면

경주 불국사는 10월 12일 경내 범영루 앞 광장에서 제 41회 신라불교 영산대재'를 봉행했다. 신라문화제의 하나로 열린 영산대재에는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 관장 종상 스님과 최양식 경주시장 등 천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해 법흥왕과 표훈대사, 신라 김대성 재상, 박정희 전 대통령, 월산성림 대종사 등 5명의 위인을 기렸다.

불국사는 이어서 오후에는 영산대재 예술제로 불국사 석가사 연합합창단의 합창과 무용 등으로 꾸며진 기념음악회를 다채롭게 가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사찰-경찰서 연대 청소년 인성 밝힌다


부산 삼광사와 부산진경찰서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식' 기념촬영

부산 삼광사(주지 무원)와 부산진경찰서(경찰서장 이노구)가 10월16일 삼광사 금강불교대학 강의실에서 '청소년 인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식' 을 가졌다.

이날 협약식에는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진경찰서 이노구 경찰서장을 비롯한 100여명의 불자들이 함께했다.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은 "삼광사가 청소년들의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부산진경찰서가 동참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날로 거칠어져 가고 삭막해져가는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한 인성을 가꾸는데 정부기관과 종교계가 함께 노력을 기울인다면 결국 사회 전체를 위해 공헌하는 길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삼광사와 부산진경찰서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앞으로 청소년의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다도 체험, 청소년 템플스테이, 부산진경찰서 현장학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연계해서 진행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박경수 부산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도심사찰에 나무를 심자

집을 지으면서 나무를 살리기 위해 집의 위치를 바꾸거나, 아예 집의 천장을 뚫어서 나무를 살려낸 지혜를 살필 수 있는 사찰이 여러 곳 있다. 나무도 생명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부처님 말씀에 따라 함부로 대하지 않고 귀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은 나무를 아무렇게나 취급하지 않았다. 심지어는 나무를 신성한 존재로 생각해서 숭배하기까지 하였다.

한 학자가 실험한 결과를 보면 나무가 사람의 목소리나 생각을 알아차린다고 한다. "이 나무를 베어버릴까?"라고 하면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아서 나뭇잎이 시들기도 하고 열매가 떨어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오래전 도문화재위원으로 있을 때 한 사찰에서 신청한 문화재현상변경을 위한 조사를 나갔는데, 집을 지을 자리에 있는 아름드리 소나무를 의도적으로 죽이는 현장을 목격했다. 그냥 베어버리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지 뿌리를 손상시켜서서히 말라죽도록 하고 있었다. 정말 끔직한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부처님도량에서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어서 더더욱 당혹스러웠다.

최근에 남을 해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는 자기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생기고 있으니, 우리 사회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험해질 수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 부처님께서는 살아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기에는 탁발을 하지 않고 집에서 나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그것이 바로 불가에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는 이른바 안거이다. 부처님의 이러한 생명존중 사상은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남의 생명을 귀중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존엄한 일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사람뿐만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의 가치를 귀중하게 생각하는 교리는 아마도 불교가 아니고서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세상이 점차 도시화되고 사찰이 도시로 내려오면서 불교계에서 해야 할 일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색도시에 살아있는 생명을 끌어들이는 일도 그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적어도 사찰에서는 법에서 정했으니 어쩔 수 없이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절을 찾는 많은 대중들에게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나무를 심어야 한다.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생명을 존중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 사찰은 나무가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사진은 경상남도 ㄱ사찰

대한불교조계종 제34대 총무원장
자승스님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낙산사 · 홍련암

설악산 신흥사 조실 무산 오현

주지 무문

사부대중일동



낙산사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 033)672-2447~8
www.naksansa.or.kr